

## 〈국제학술회의〉

## 제6차 International Symposium on Stochastic Hydraulics을 다녀와서

조 용 준\*

먼저 이 symposium의 성격과 그동안의 변천과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이번 conference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symposium은 1970년대 초에 수리학에 있어서의 화를론적 방법이라는 주제로 University of Pittsburgh의 Professor Chao Lin Chiu가 주동이 되어 미국 Pittsbwgh에서 그 첫모임을 가진 이래 여러 수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추계학적 접근방법이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되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이 symposium은 그 양적, 질적 성장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1992년 5월 18일 부터 5월 20일 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 6차 International Symposium on Stochastic Hydraulics도 예외는 아니어서 24개국에서 stochastic open channel, river hydraulics, risk and reliability analysis, turbulence, waves and coastal problem, stochastic hydrology, sediment transport, groundwater hydraulics, catchment hydraulics와 stochastic operation에 관한 약 170편의 논문이 응모되었고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96편의 논문이 본 symposium의 technical session 기간에 발표되었다. 또한 서독 University of Karlsruhe의 Professor Erich J. Plate가 수공구조물의 추계학적 설계법에 관해, 미 지질국의 Dr, N, C, Mataba가 섬의 수문특성에 관해, 일본 近畿대학의 Professor Takeharu Etoh가 도시 유출구조물의 효율성에 관해 행한 강연도 함께 병행되었다. 나의 전공 분야인 파동과 해안공학에 관한 논문들만 간략히 소개하면, 개방경계에서의 측정자료에 오차가 포함된 대규모 조석모형의 검증방법에 관한 논문이 한편, 천해역에 있어서 불규칙한 파랑장에 대한 추계학적 모형에 관한 논문이 한편, 해양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설계파고의 산정에 관한 논문이 한편, 불규칙한 파랑장의 통계특성에 관한 논문 세편, 조석에서의 확산과정들 추계학적 편미

분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화한 논문이 한편, 기존에 제안된 frequency spectrum bandwidth의 크기를 나타내는 parameter와 비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비교한 논문등 총 11편위 논문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 가지 특기할만 한 사항은 대만과 일본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리적 이점과 주최국으로써 분발한 점도 상당수 작용했다고 생각되며 이런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Symposium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이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Symposium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이번 Symposium의 집행부 구성에 관해 소개하면 본학술대회는 대만 국립대학 토목공학과와 대만토목학회가 주축이 되어 대만국립대학의 협조와 미국토목학회, 일본토목학회, 대만 토목학회의 후원아래 대만 교육부, 농림부, 과학재단과 몇몇 민간기업의 재정적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의 적극적인 후원과 원활히 이루어진 産學협동이 이 Symposium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한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측 참가인원의 약 50%가 관, 약 28%가 학, 약 22%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주 우리와 비교되는 대만에서 열린 symposium이라 표현이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네들이 운영능력을 호기심있게 지켜보았다. 대개 하나의 conference는 그 개최일자와 장소 혹은 취합하고자하는 논문의 성격을 알리는 안내책자의 발송에서 시작되어 참가하려고 하는 이와 주최측간의 많은 서신왕래과정을 거쳐 개최되기까지 약 1년이란 세월이 소요되는 데, 본 symposium의 경우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 그들의 성숙도를 짐작하게 했다. 물론 미 유학시절에 그네들의 끈끈한 유대감에 대해서는 익히 경험해온터라 짐작 못할 바는 아니었으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

있는 중국계 학자들, 예를 들면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의 Professor Ben Chie Yen,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Professor H. W. Shen, Univ. of Pittsburgh의 Professor Chao Lin Chiu와 그밖의 많은 소장 교수들이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시기를 놓친 탓에 유래가 없는 비싼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하철 공사, 교통체증 등, 여기 저기 파헤쳐진 타이페이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활동이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미약했다는 점인 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본 symposium의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위원으로 분투하신 한양대학교 윤태훈 교수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4년 후의 제 7차 Symposium은 Arstralia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